

자기꾸밈을 통한 워킹맘의 우울감 치유 가능성 제안

-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Proposal for the Possibility of Treating Depression in Working-mom through Self-adornment
- Focusing on Network Analysis -

김 지 윤, 이 규 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i Yoom Kim¹, Kyu-Hye Lee*

PhD Student,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Married women are facing increasing burdens as they have to do not only social activities but also housework and childcare due to their lives as working-mom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working-moms will eventually choose to stop economic activities, resulting in social losses, or even lead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s.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working-moms an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healing through self-adornment in relation to appearance, which women are most sensitive to.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ssues related to depression and embellishment among working-moms, and the analysis period was set to the COVID-19 pandemic period when social restrictions were most seve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stressful factors for working-moms were work and child care. This was found to be the result of irregular working hours and a lack of proper division of roles due to both work and housework being handled at home due to restrictions on external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It was found that working-moms use decorating behaviors to relieve the depression caused by these cau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or companies should encourage participation by planning programs or events to help working-moms heal through self-adornment, and ensure that working-moms' emotions and feelings are maintained stably. As a result, women should be able to improve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working-moms and reduce their resistance to becoming working-moms.

Key words : working-mom, depression, COVID-19, self-adornment, network analysis

주제어 : 워킹맘, 우울감, 코로나-19, 자기꾸밈, 네트워크 분석

I . Introduction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속에 결혼한 여성들은 사회활동과 더불어 과거 여성의 몫이었던 가사와 육아 등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사 활동에 대한 역할 부담이 공평하게 재조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마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슈퍼맘 신드롬 즉, 워킹맘은 가사와 육아와 사회활동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의 부담이 워킹맘들의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다. 워킹맘들은 늘 시간적 및 정신적 여유 부족으로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발된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가정에서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워킹맘들은 사회적 손

* Corresponding Author ; Kyu-Hye Lee

Tel : 82-2-2220-1191, E-mail : khlee@hanyang.ac.kr

실을 낳는 경제 활동 중단을 선택하거나 저출산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 외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비교를 더 많이 한다. 이는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 현상과 자기 신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는 시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여성들은 사회적 기준이 만든 이상적 아름다움에 근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단 미혼의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워킹맘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타인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모습과의 괴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며 우울증도 유발하게 된다. 우울증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원하지 않은 규범의 통제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COVID-19 기간에 공포, 불안, 우울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으며(Kang et al., 2020), 그 이전에도 SARS 등의 유행성 질병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우울 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Shin et al., 2019). 따라서 팬데믹 기간의 우울감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는 병리적 약물치료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만연한 정신과 치료 기피 현상으로 워킹맘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상에 대한 문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심리치료가 등장하였으며 음악치료(music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향기치료(aroma therapy)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꾸밈을 활용한 패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꾸밈을 테라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패션을 활용한 행동이 사회적 인간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류 착용이나 외모 관리 행위는 누구에

거나 제2의 피부로 항상 공존하는 현실이며, 미적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션을 도구로 하여 패션을 경험하도록 하고, 패션과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변화를 도와준다. 패션을 활용한 치료는 일상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 향상, 자기만족 등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Wood-Barcalow et al., 2010).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Extreme Makeover', 영국의 'What not to Wear', 한국의 'Let미인'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패션 테라피로 개인의 자존감,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향상 등 문제 해결 사례가 있다.

워킹맘들이 처한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신 건강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사례가 없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제약을 받게 될 때 우울감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워킹맘의 일상 및 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할 수 있다면 여성들이 워킹맘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내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슈퍼맘 신드롬과 사회적 외모 비교 등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워킹맘이 패션의 꾸밈 행동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우울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팬데믹 기간에 집중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워킹맘 개인의 정신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Method

최근의 정보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 “정보의 쓰나미”라고 할 정도가 되면서

(Mayer-Schönberger, 2013), 빅데이터는 정보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산되고, 측정 및 기록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잠재력을 가진다(Han,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기간에 발생한 워킹맘의 이슈 및 감정과 꾸밈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COVID-19 관련 정신 건강 사례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Lim(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와 의미를 알아본 결과 상위 핵심 키워드로 우울감, 극복, 장기화, 마음, 불안 등이 나타났다. Yoo and Lim(2021)의 연구에서는 COVID-19 감정과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 불안, 상황, 마음, 사회, 건강과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2023)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와 사회적 반응을 탐색한 결과 상위 핵심 키워드로 극복, 불안, 사람, 마음, 장기, 증상, 스트레스, 후유증 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워킹맘”, “직장맘”, “꾸밈”, “치유”, “패션”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카페 및 블로그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블로그는 정보성, 감정,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카페는 특정 집단에서의 이슈, 인식 파악에 유용하다. 수집 기간은 COVID-19 팬데믹 집중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는 텍스트(textom)을 활용하여 TF-IDF, 연결중심성, CONCOR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III. Results

1. TF-IDF 분석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TF와 단어가 전체 문서 중 몇 개의 문서에서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IDF(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Ryu & Cho, 2020). 본 연구에서 TF-IDF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검색 키워드인 ‘워킹맘’과 ‘패션’을 제외한 상위 핵심 키워드로는 ‘우울’, ‘직장’, ‘일’, ‘사람’, ‘아이’ 등이 나타났다. COVID-19 기간에 워킹맘들은 우울한 감정을 경험했으며, 직장 혹은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우울감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COVID-19 이후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배우자와의 관계, 불규칙한 근로 시간, 과도한 근로 시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부적절한 작업 자세, 직장 내 차별, 자녀 양육 부담감이 나타났다는 Jeong and Han(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치유와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키워드는 ‘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영화’, ‘친구’, ‘일반소설’, ‘드라마’가 나타났다. 워킹맘들은 팬데믹 동안 우울한 감정을 경험했을 때, 일차적인 수단으로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도 되는 회복 행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이차적인 수단으로 친구를 통해 위로받거나 영화 혹은 소설 등 경험적 행동을 통해 치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TF-IDF 분석 결과

| 순위 | Keyword | TF-IDF |
|----|---------|--------|
| 1 | 패션 | 191.25 |
| 2 | 우울 | 180.06 |
| 3 | 직장 | 173.48 |
| 4 | 일 | 168.59 |
| 5 | 사람 | 152.77 |
| 6 | 워킹맘 | 146.13 |
| 7 | 맘 | 125.63 |
| 8 | 아이 | 118.74 |
| 9 | 엄마 | 113.41 |
| 10 | 우울증 | 103.56 |
| 11 | 옷 | 102.57 |
| 12 | 생각 | 99.91 |
| 13 | 육아 | 98.28 |
| 14 | 오늘 | 95.55 |
| 15 | 집 | 89.72 |
| 16 | 마음 | 88.64 |
| 17 | 영화 | 88.23 |
| 18 | 친구 | 84.99 |
| 19 | 일상 | 84.76 |
| 20 | 일반소설 | 80.55 |
| 21 | 말 | 75.25 |
| 22 | 드라마 | 73.40 |
| 23 | 회사 | 71.08 |
| 24 | 사랑 | 70.00 |
| 25 | 추천 | 69.08 |
| 26 | 힘들 | 66.82 |
| 27 | 이야기 | 63.39 |
| 28 | 마스크 | 62.21 |
| 29 | 시간 | 61.08 |
| 30 | 시작 | 61.08 |



<그림 3> TF-IDF 분석 시각화 결과

나 많은 연결을 가졌는지를 나타낸다(Cheung, 2022). 이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어가 등장한 빈도만으로는 키워드 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결중심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결중심성에 관한 상위 키워드로는 ‘우울’, ‘패션’, ‘직장’이 나타나 TF-IDF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COVID-19 기간에 워킹맘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환경에서 우울감을 느꼈으며, 직장 및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워킹맘들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기혼 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악화시키고,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hin(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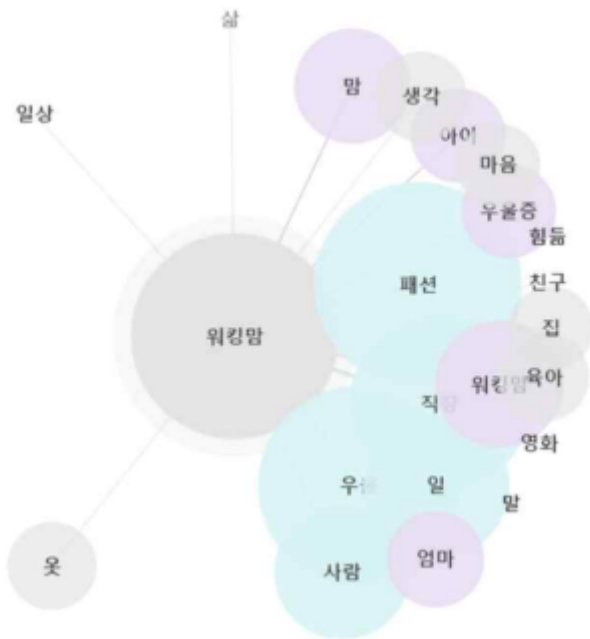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치유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보다 연결성이 낮게 나타났다. 치유는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인지된 이후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유보다 앞선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결중심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유와 관련하여 TF-IDF 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집’, ‘친구’는 순위가 올라갔지만 ‘옷’은 순위가 내려갔다. 치유를 위한 행동은 발생하는 순서와는 다르게 패션제품 쇼핑이나 꾸밈보다 집에서의 휴식과 친구와의 교류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의복을 통한 치유는 어느 정도 감정이 회복된 이후에 동반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2. Centrality analysis

연결중심성(centrality)은 특정 노드(node)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

<표 3>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 순위 | Keyword | Degree centrality |
|----|---------|-------------------|
| 1 | 우울 | 0.051 |
| 2 | 패션 | 0.049 |
| 3 | 직장 | 0.045 |
| 4 | 일 | 0.030 |
| 5 | 맘 | 0.028 |
| 6 | 사람 | 0.025 |
| 7 | 워킹맘 | 0.023 |
| 8 | 엄마 | 0.016 |
| 9 | 생각 | 0.016 |
| 10 | 아이 | 0.016 |
| 11 | 우울증 | 0.015 |
| 12 | 집 | 0.014 |
| 13 | 마음 | 0.014 |
| 14 | 친구 | 0.013 |
| 15 | 육아 | 0.012 |
| 16 | 일상 | 0.012 |
| 17 | 옷 | 0.012 |
| 18 | 힘들 | 0.009 |
| 19 | 요즘 | 0.009 |
| 20 | 드라마 | 0.009 |
| 21 | 시작 | 0.009 |
| 22 | 회사 | 0.009 |
| 23 | 사랑 | 0.008 |
| 24 | 영화 | 0.008 |
| 25 | 삶 | 0.007 |
| 26 | 시간 | 0.007 |
| 27 | 직장생활 | 0.007 |
| 28 | 말 | 0.007 |
| 29 | 여성 | 0.007 |
| 30 | 이야기 | 0.007 |



<그림 4> 연결중심성 분석 시각화 결과

3. Concor analysis

Concor 분석은 주요 단어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같은 군집(cluster)으로 구분하여 주제어의 유형을 소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Han & Hwang, 2023).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여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군집 1은 우울, 직장, 마음, 친구, 일상, 직장생활, 마스크, 코로나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원인 중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직장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군집 2은 육아, 엄마, 인생,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원인 중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육아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군집 3는 사람, 사랑, 옷, 영화, 일반소설, 집, 행복, 추천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에서의 치유’로 명명하였다. 군집 4은 뷰티, 패션, 패션쇼, 공감, 분위기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꾸밈의 대표적인 요인인 뷰티와 패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분 전환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꾸밈을 통한 치유’로 명명하였다.

Concor 분석에서 시각화 결과를 보면 군집 1 및 군집 2가 비교적 군집 4보다 군집 3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치유의 범주로 보면, 팬데믹 동안 워킹맘들에게 직장 및 육아와 관련하여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꾸밈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융통성 있는 대처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패션 기업에서는 정기적인 이벤트 혹은 쿠폰 제공 등으로 꾸밈을 통한 치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구매나 쇼핑 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패션을 통한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CONCOR 분석을 통해 워킹맘의 스트레스는 크게 직장과 육아, 이에 따른 치유 방식은 일상에서의 치유와 꾸밈을 통한 치유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워킹맘은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두 가지의 경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COVID-19 발생 이전에는 일과 가사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반면, COVID-19 발생 이후에는 일과 가사가 집이라는 한 가지 장소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 아이를 위한 시설도 잠정적 운영 정지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사라지면서 일과 육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워킹맘들은 자신이 지켜오던 일상이 깨지는 것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고, 여행은커녕 가까운 곳에 나들이조차 생각할 수 없었기에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고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영화 보기, 소설 읽기 등 일상을 틈틈이 활용하거나, 화장품이나 의복을 통해 자신을 꾸밈으로써 내적 위로를 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공감해주는 상대가 없다 보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COVID-19와 같은 이례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워킹맘들이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여성들이 워킹맘으로 사는 삶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가 찾아왔을 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 안에만 갇혀있는 워킹맘들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워킹맘들은 자신을 꾸밈으로써 감정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와 연관성이 있는 패션 기업들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의 꾸밈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쇼핑이나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시기에 따른 워킹맘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장 및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워킹맘에게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펜데믹 기간 외에 발생 전후 우울감이 생기는 주요 원인의 차이 혹은 스트레스 항목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COVID-19 발생 전후를 포함한 COVID-19 기간의 행동 및 감정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꾸밈에 대한 행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꾸밈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꾸밈에도 화장, 의복 등 다양한 행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 혹은 우울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꾸밈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워킹맘들이 치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꾸밈 행동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혹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워킹맘의 연령이나 직업군에 따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복을 위한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격과 같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COVID-19 기간에 따른 우울증에 대해 이러한 특성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이례적인 질병에 대비하

여 특정 기간 워킹맘들의 우울감과 치유에 대한 이슈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인 출산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워킹맘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제안함으로써 여성들의 워킹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자 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워킹맘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안으로 꾸밈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패션 분야에서도 워킹맘의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Cheung, T. C. (2022). Quantitative Study of Soft Masculine Trends in Contemporary Menswear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6(6), 1058-1073.
- Han, S. K. (2015). Doing Social Sciences in the Age of Big Data: Rethinking Analytical Strategy in the Changing Data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2), 161-192.
- Han, Y., & Hwang, J. (2023). Use of Metaverse and User Percep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4(12), 3023-3035.
- Jeong, Y. R., & Han, S. S. (2022). Stress experienced by married working wom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6(4), 85-95.
- Kang, J. H., Bak, A. R., & Han, S. T.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5), 289-297.
- Kim, Y-J. (2023). Analysis of Issues on COVID-19 Blues Using Big dat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3(2), 29-47.
- Lim, Y. H. (2021). COVID-19 Blues: A Big Data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2), 829-852.
- Mayer-Schönberger, V. (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Vol. 2). Houghton Mifflin Harcourt google schola.
- Shin, H-J. (202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Family Life due to COVID-19, Daily Stres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6), 251-260.
- Ryu, M. H., & Cho, H. (2020). An Analysis of IoT Service using Sentiment Analysis on Online Review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5(5), 91-102.
- Shin, J., Park, H. Y., Kim, J. L., Lee, J. J., Lee, H., Lee, S. H., & Shin, H. S. (2019). Psychiatric morbidity of survivors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Korea, 2015.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8(3), 245-251.
- Wood-Barcalow, N. L., Tylka, T. L., & Augustus-Horvath, C. L. (2010). "But I like my body": Positive body image characteristics and a holistic model for young-adult women. *Body image*, 7(2), 106-116.
- Yoo, S. Y., & Lim, G. G. (2021). Analysis of news agenda us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Focused on COVID-19 emotion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7(1), 47-64.